

2018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I. '18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II. '18년 2분기 수출 전망	12
III. 수출기업 애로 사항	19

작 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3779-6677)
yzkim@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02-6255-5709)
nhy@koreaexim.go.kr

< 요 약 >

I. '18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0.1%, 전분기대비 1.3% 증가

- 1분기 수출액은 전분기(1,435억 달러) 대비 1.3%, 전년동기(1,321억 달러) 대비 10.1% 증가한 1,454억 달러로, '16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 기록
- 반도체, 일반기계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호조세 유지, 주요국 경기 회복,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철강 수출도 증가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8.4%), 석탄 및 석유제품(-3.8%), 금속제품(-3.4%)은 하락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15.4%), 일반기계(6.6%)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5.5% 상승, 전기대비로는 0.3%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기대비 증감률(%) : 2.7('17.2Q)→4.8(3Q)→△1.6(4Q)→△0.3('18.1Q)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대비 4p 하락

- 원화 환율 하락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 수출물량 및 계약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 수출 업황 하락 평가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90	93	94	90	85	96	90	97	92	98	96	96	92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0	94	98	94	93	95	90	95	92	95	95	94	91
	수출단가 평가지수	91	97	100	93	97	100	94	101	99	99	102	95	102
	생산원가 평가지수	99	103	103	97	103	104	103	112	111	108	113	110	115
수출물량 평가지수		90	96	94	91	85	97	93	97	94	100	97	98	92
수출계약 평가지수		89	96	93	90	84	97	93	97	93	100	96	98	93
자금사정 평가지수		93	96	95	97	95	97	96	97	97	96	95	98	96

-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플랜트·해외건설 등은 전기 대비 상승,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철강·비철금속 등은 하락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

산업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플랜트· 해건	신재생 에너지	대기업	중소 기업
'17.4Q	99	98	90	96	95	86	89	93	102	94
'18.1Q	88	90	92	92	84	94	98	113	99	90

II. '18년 2분기 수출 전망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3.7%, 전기대비 2.6% 상승

- '18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5로 전기대비로는 2.6%,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7% 상승해 6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수출 선행지수가 6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하락하고 있어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4.7('17.1Q) → 16.7(2Q) → 24.0(3Q) → 8.4(4Q) → 10.1('18.1Q)

< 수출선행지수 추이 >

분기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07.1	104.3	107.1	110.0	111.9	118.1	115.0	118.2	119.5	122.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2	△5.2	△2.2	0.0	4.5	13.2	7.4	7.5	6.8	3.7
전기대비 증감률(%)	△2.6	△2.6	2.7	2.7	1.8	5.5	△2.6	2.8	1.1	2.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2.5	3.0	3.1	2.2	4.5	8.7	△5.8	0.1	△0.7	△3.0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지속 · 가격경쟁력은 하락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 유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도 경기 성장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2010년=100) : 140.0('17.2Q)→ 141.8(3Q)→ 143.1(4Q)→ **144.0('18.1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기대비 8.9%,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축소

※ 수출용 수입액지수 (2010=100)

: 97.7('17.1Q)→ 93.0(2Q)→ 96.7(3Q)→ 101.0(4Q)→ **110.0('18.1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1.6% 하락하는 등 증가폭 축소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63.3('17.1Q)→ 60.2(2Q)→ 61.8(3Q)→ 64.9(4Q)→ **63.8('18.1Q)**

- 가격경쟁력 :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3% 하락하는 등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여 수출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29.4('17.2Q)→ 1,132.2(3Q)→ 1,105.7(4Q)→ **1,072.3('18.1Q)**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13.3('17.2Q)→ 110.9(3Q)→ 112.7(4Q)→ **113.2('18.1Q)**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유가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5.2%) 및 전기대비(1.2%) 상승은 지속하고 있으나, LCD·플래시 메모리 등 전기 및 전자기기 공급 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10.2 ('17.1Q) → 9.4 (2Q) → 8.9 (3Q) → 7.3 (4Q) → **5.2 ('18.1Q)**

- 주요 산업 : 반도체 단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고 기업 수요 증가세도 유지, 주요국 경기 호조로 인한 교역 증가·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 전망

※ D램 현물가격(\$, DDR4_4Gb): 3.2('17.1월)→4.9(12월)→4.9('18.1월)→4.8(2월)→4.6(3월)

□ '18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 내외 증가 전망

- 2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2.6%,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고,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2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 내외 상승 전망
-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고, 전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 설문대상 수출기업(455개사)은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53.0%), '개도국의 저가공세'(46.2%), '원재료 가격 상승'(18.5%) 순으로 응답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 2.3%p(50.7%→53.0), '원재료 가격 상승' 3.7%p(14.8%→18.5) 상승
- (규모별) 대기업은 전기대비 '수출대상국 수입규제' 응답률이 8.6%p 상승(14.9%→23.5%),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이 5.2%p 상승(15.3%→20.5%)

I. '18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0.1%, 전분기대비 1.3% 증가

○ 1분기 수출액은 전분기(1,435억 달러) 대비 1.3%, 전년동기(1,321억 달러) 대비 10.1% 증가한 1,454억 달러로, '16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 기록

- 3월 수출액은 515.8억 달러, 일평균 수출액도 21.9억 달러로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대 월간 및 일평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 출 액	1,282	1,300	1,152	1,260	1,219	1,324	1,321	1,470	1,511	1,435	1,454	
증가율(%)	△9.5	△120	△13.3	△6.7	△5.0	1.8	14.7	16.7	24.0	8.4	10.1	
수출물가지수	84.5	81.2	78.3	79.4	80.6	83.6	86.3	86.9	87.8	89.7	90.8	
증가율(%)	△13.9	△128	△10.9	△10.1	△4.5	3.0	10.2	9.4	8.9	7.3	5.2	
수입물가지수	80.4	77.1	72.9	76.3	77.4	80.2	83.3	82.6	83.0	86.5	90.0	
증가율(%)	△24.2	△195	△15.0	△11.0	△3.7	4.1	14.3	8.2	7.3	7.8	8.0	
수출물량지수	134.9	140.0	129.2	137.7	135.4	141.5	137.7	141.3	148.0	145.6	145.2	
증가율(%)	4.2	0.5	△0.1	1.9	0.4	1.1	6.5	2.6	9.3	2.9	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주: 수출액은 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0=100)

○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반도체·일반기계 등 호조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으나, 그 외 지역은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증가폭은 축소 중

- 미국은 자동차 판매 부진 및 미국내 원유 설비 가동률 증가 등으로, 중동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주요지역별 수출 증감률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구분		'17. 11월	12월	'18. 1월	2월	3월
중	국	20.4	14.9	24.5	3.7	16.6
베	트 남	46.3	27.2	53.1	14.2	△3.3
아	세 안	14.1	29.4	37.3	4.8	2.2
일	본	10.8	10.2	21.6	21.2	9.7
미	국	11.5	△7.8	4.4	△11.1	△1.0
중	동	△13.6	△19.1	4.4	△9.6	△22.5

- 품목별로는 서버용 메모리 및 사물인터넷 등 신규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화학, 석유제품도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 지속

※ 반도체 수출액(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27('17.2Q, 54.4%)→263(3Q, 61.6%)→287(4Q, 66.5%)→295('18.1Q, 45.9%)

-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설비·건설 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등도 증가세 유지
- 무선통신기기, 가전은 해외생산 비중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로 수출 감소 지속,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 생산 확대에 의한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전환, 미국내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 부진도 지속

< 주요품목별 수출 증감률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구분		'17. 11월	12월	'18. 1월	2월	3월
반	도 체	65.2	64.9	53.3	40.8	44.2
석	유 화 학	18.4	21.9	18.4	6.4	0.8
일	반 기 계	19.3	10.8	27.4	△3.1	6.1
무	선 통신 기기	△21.5	△36.0	△9.8	△32.3	△15.5
디	스 플 레 이	2.3	△11.5	△7.6	△22.4	△16.5
자	동 차	3.0	△34.3	13.3	△14.5	△8.6

○ 수출물량은 8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 축소, 수출물가도 상승세 유지

-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8.4%), 석탄 및 석유제품(-3.8%), 금속제품(-3.4%)은 하락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15.4%), 일반기계(6.6%)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5.5% 상승, 전기대비로는 0.3%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기대비 증감률(%) : 2.7('17.2Q)→ 4.8(3Q)→ △1.6(4Q)→ △0.3('18.1Q)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14.0%), 1차 금속제품(10.6%), 화학제품(7.0%)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해 상승세 유지, 전기대비로도 1.2% 증가

□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환율 영향으로 하락 지속,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상승세 유지

○ 원달러 환율이 전기대비 3% 하락한 영향으로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전기대비 1.6% 하락, 전년동기대비로도 1.6% 하락해 수출기업 채산성은 악화

※ 원/달러환율(평균) : 1,129.4('17.2Q)→ 1,132.2(3Q)→ 1,105.7(4Q)→ 1,072.3('18.1Q)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 84.8('17.2Q)→ 86.0(3Q)→ 85.9(4Q)→ 84.5('18.1Q)

-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전기대비 +7.9%)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물가지수가 전기대비 5.6% 상승해 전체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로도 0.3% 상승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49.7(2Q)→ 50.4(3Q)→ 59.3(4Q)→ 64.0('18.1Q)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73.8('17.2Q)→ 73.4(3Q)→ 77.5(4Q)→ 80.8('18.1Q)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0.6('17.2Q)→ 81.3(3Q)→ 82.8(4Q)→ 83.5('18.1Q)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대비 4p 하락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환율 하락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 수출물량 및 계약 둔화 등으로 전기대비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환율 하락 가운데에도 일부 제품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단가 평가지수(원화기준)는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상승해 이를 종합한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3p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29.4('17.2Q)→ 1,132.2(3Q)→ 1,105.7(4Q)→ **1,072.3('18.1Q)**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기대비 6p 하락한 92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기대비 5p 하락한 93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대비 2p 하락한 96 기록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90	93	94	90	85	96	90	97	92	98	96	96	92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0	94	98	94	93	95	90	95	92	95	95	94	91
수출단가 평가지수	91	97	100	93	97	100	94	101	99	99	102	95	102
생산원가 평가지수	99	103	103	97	103	104	103	112	111	108	113	110	115
수출물량 평가지수	90	96	94	91	85	97	93	97	94	100	97	98	92
수출계약 평가지수	89	96	93	90	84	97	93	97	93	100	96	98	93
자금사정 평가지수	93	96	95	97	95	97	96	97	97	96	95	98	96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업황

□ (기업규모별) 전기대비 대기업 3p 하락, 중소기업 4p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1p, 3p 하락, 수출물량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7p, 5p 하락

□ (산업별) 신재생에너지, 플랜트·해외건설 등은 전기대비 상승,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철강·비철금속 등은 하락

- 수출물량은 선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해외건설 등은 상승,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철강·비철금속 등은 하락

< '17년 4분기~'18년 1분기 수출업황·수출채산성·수출물량 평가지수 >

구 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17년 4분기	'18년 1분기	'17년 4분기	'18년 1분기	'17년 4분기	'18년 1분기
전 체		96	92	94	91	98	92
규 모	대 기 업	102	99	98	97	105	98
	중 소 기 업	94	90	93	90	96	91
산 업	전 기 전 자	90	92	91	93	92	91
	기 계 류	96	92	96	91	99	94
	철 강·비 철 금 속	98	90	91	91	99	94
	석 유 정 제·화 학	99	88	92	82	103	85
	자 동 차	95	84	91	87	99	83
	섬 유 류	104	98	104	91	103	100
	플랜트·해외건설	89	98	97	96	91	94
	신 재 생 에 너 지	93	113	107	103	102	108
	선 박	86	94	86	100	80	90
수 출 지 역	미 국 (북 미)	95	89	95	89	100	92
	중 국	101	93	97	91	103	94
	일 본	100	95	94	92	102	93
	유 로 존	93	90	91	91	94	89
	동 남 아	94	89	92	93	95	88
	중 남 미	92	92	96	79	88	88
	중 동	92	102	92	94	94	106

□ (지역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기대비 하락

- 수출채산성은 중남미, 미국, 중국 등에서 하락, 수출물량은 중동에서는 상승했으나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하락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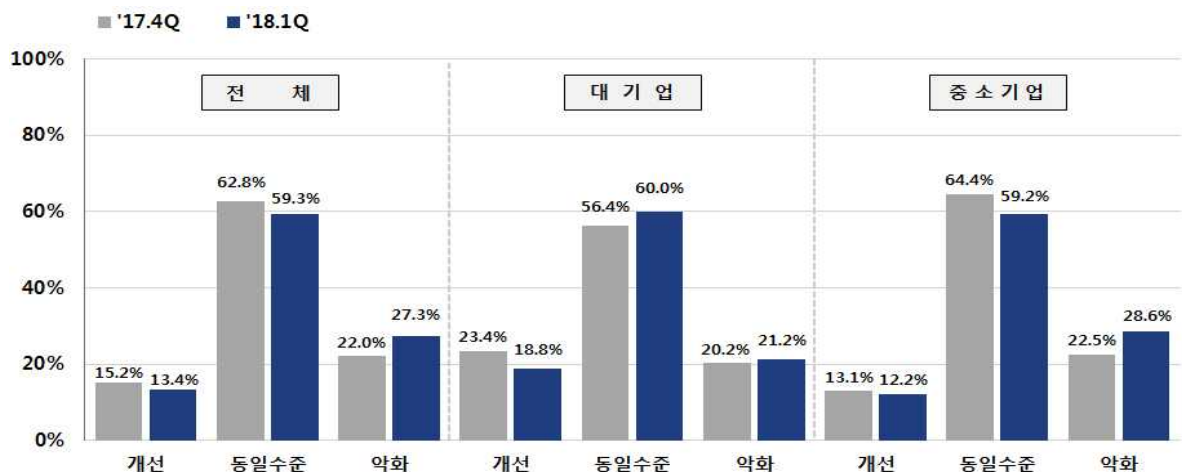
가. 수출업황 평가 현황

□ 설문응답 수출기업(455개사) 중 수출업황 전기대비 '개선' 응답은 13.4%, '악화' 응답은 27.3%로 악화 우세 유지

- 전기대비 수출업황 '악화' 응답 비율이 5.3%p 증가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업황 '악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대기업의 '악화' 응답은 전분기대비 1.0%p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6.1%p로 더 높게 증가

< 1분기 수출업황 평가 현황(기업규모별) >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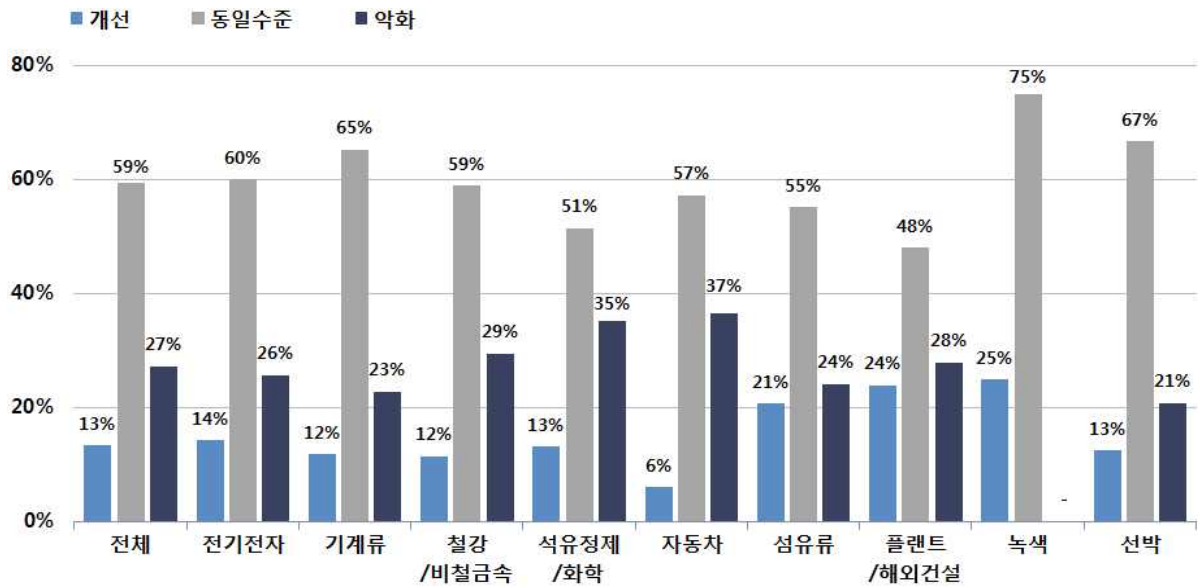


- (산업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비철금속,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업종에서 '동일 수준'이 50~7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 응답이 '개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신재생에너지, 플랜트·해외건설, 선박 등은 개선 응답이 각각 11.4%p, 11.9%p, 4.5%p 증가하였고, 철강·비철금속,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등은 '악화' 비중이 각각 12.2%p, 14.1%p, 16.1%p 증가

< 1분기 수출업황 평가 현황(산업별) >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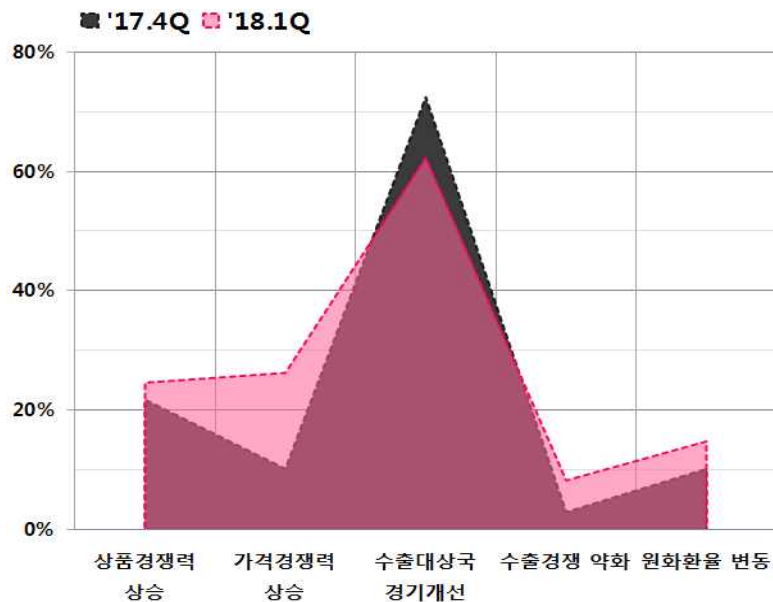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수출업황 '개선' 응답 기업(61개사)은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62.3%), '가격경쟁력 상승'(26.2%)을 선택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개선' 응답 기업 수 61,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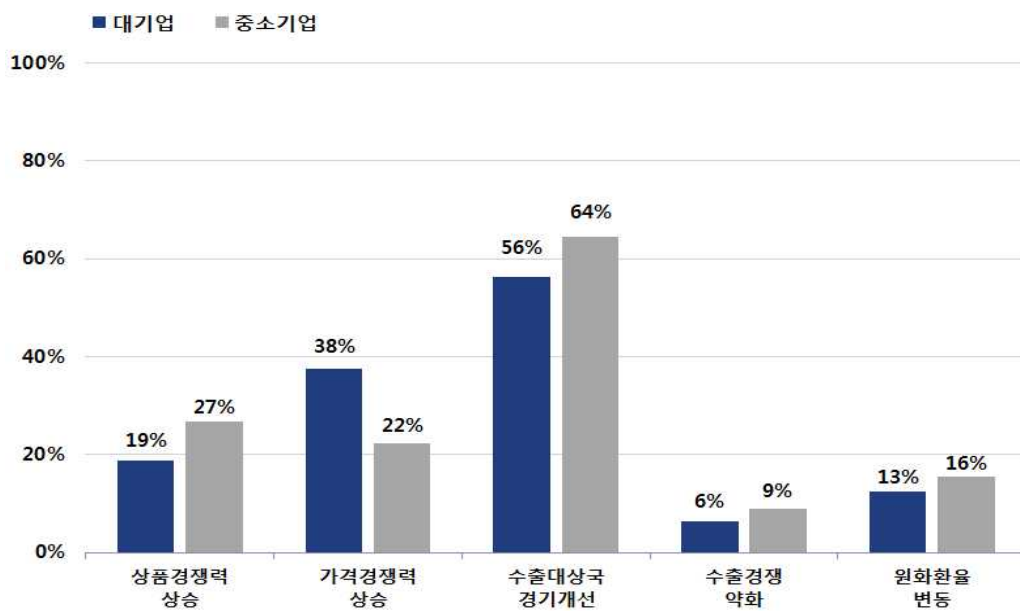


(%)	'17.4Q	'18.1Q
상품경쟁력 상승	21.7	24.6
가격경쟁력 상승	10.1	26.2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72.5	62.3
수출경쟁 악화	2.9	8.2
원화환율 변동	10.1	14.8

- 전기대비 '가격경쟁력 상승(비용구조 개선)'과 '수출경쟁 약화' 응답률이 각각 16.1%p, 5.3%p 상승한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응답률은 10.2%p 하락
-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이 동남아, 일본, 중국, 유로존인 기업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선택
 -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승', 중소기업은 '상품경쟁력 상승'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기업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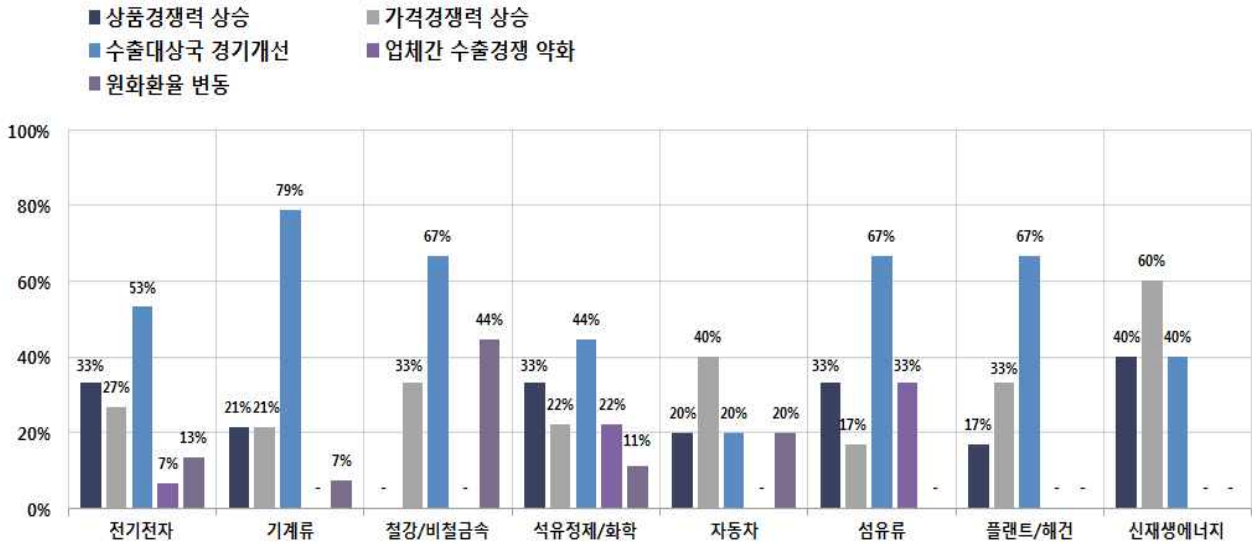
(‘개선’ 응답 기업 수 61, 복수응답, 단위 : %)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군이 업황 개선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상품경쟁력 상승' 순으로 선택
 -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비철금속,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업종에서 전기에 비해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비중이 줄고, '가격경쟁력 상승' 비중이 증가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산업별) >

(‘개선’ 응답 기업 수 61, 복수응답, 단위 : %)



< '18년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단위 : %)

구 분		상품경쟁력 상승	가격경쟁력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경쟁 약화	원화환율 변동
전 체		24.6	26.2	62.3	8.2	14.8
규모	대 기업	18.8	37.5	56.3	6.3	12.5
	중 소 기업	26.7	22.2	64.4	8.9	15.6
산업	전 기 전 자	33.3	26.7	53.3	6.7	13.3
	기 계 류	21.4	21.4	78.6	-	7.1
	철강·비철금속	-	33.3	66.7	-	44.4
	석유정제·화학	33.3	22.2	44.4	22.2	11.1
	자 동 차	20.0	40.0	20.0	-	20.0
	석 유 류	33.3	16.7	66.7	33.3	-
	플랜트·해외건설	16.7	33.3	66.7	-	-
	신재생에너지	40.0	60.0	40.0	-	-
	선 박	-	-	100.0	-	-
수출지역	미 국 (북 미)	33.3	22.2	44.4	11.1	22.2
	중 국	25.0	50.0	62.5	12.5	6.3
	일 본	15.4	7.7	69.2	7.7	30.8
	유 로 존	25.0	12.5	62.5	12.5	25.0
	동 남 아	14.3	28.6	71.4	-	-
	중 동	50.0	33.3	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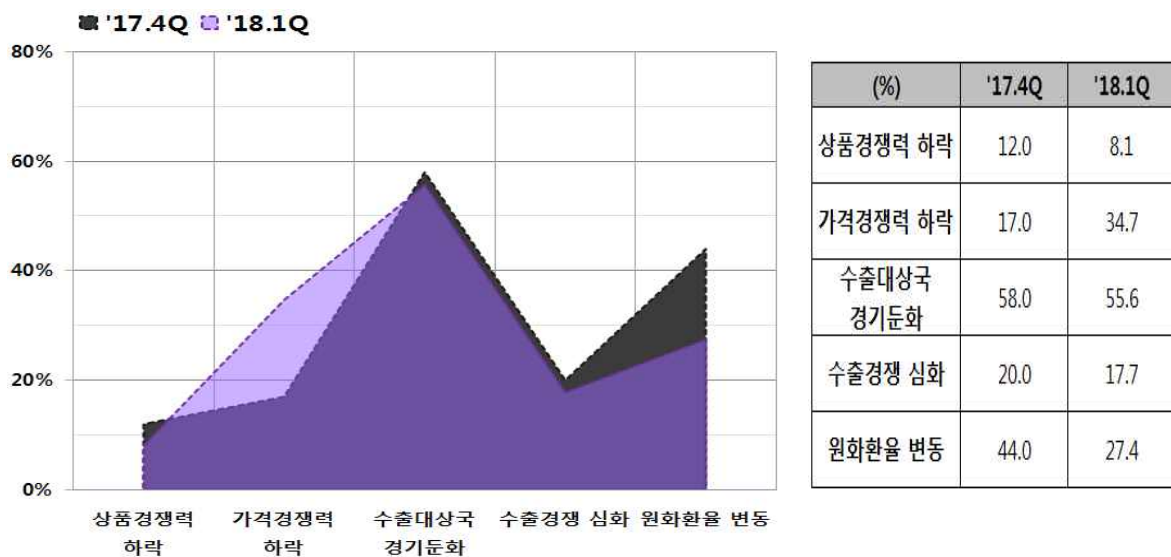
*자료 : 총 61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수출업황 '악화' 응답 기업(124개사)은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55.6%)와 '가격경쟁력 하락'(34.7%)을 선택
- 전기대비 '가격경쟁력 하락' 응답률이 17.7%p 상승, '원화환율 변동' 및 '상품경쟁력 하락' 응답률은 각각 16.6%p, 3.9%p 하락

<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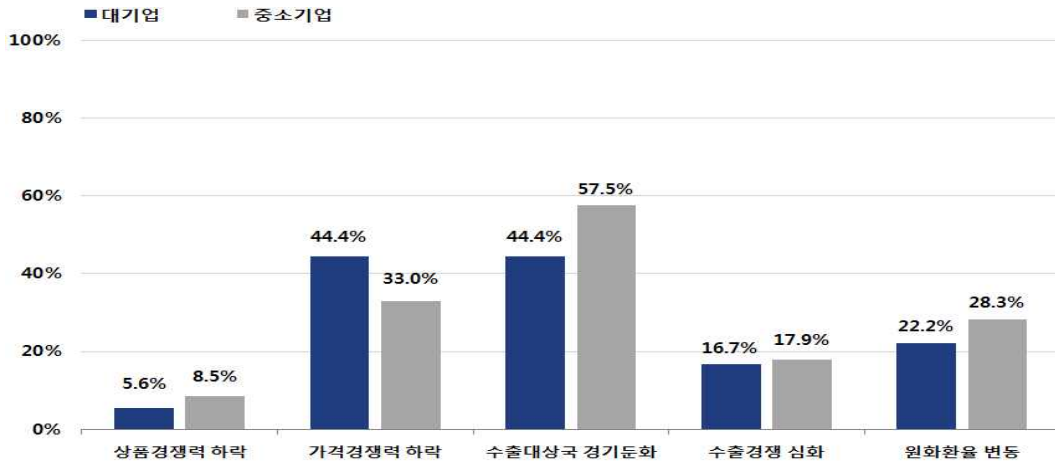
(‘악화’ 응답 기업 수 124, 복수응답, 단위 : %)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동, 중국, 동남아, 유로존인 기업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와 '가격경쟁력 하락'을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선택했으며,
 - '원화환율 변동' 비중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25.2%p, 14.9%p 감소

<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기업규모별) >

(‘악화’ 응답 기업 수 124, 복수응답, 단위 : %)



< '18년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단위 : %)

구 분		상품경쟁력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동
전체		8.1	34.7	55.6	17.7	27.4
규모	대기업	5.6	44.4	44.4	16.7	22.2
	중소기업	8.5	33.0	57.5	17.9	28.3
산업	전기전자	7.4	40.7	51.9	14.8	22.2
	기계류	-	33.3	51.9	33.3	37.0
	철강·비철금속	-	43.5	43.5	26.1	39.1
	석유정제·화학	8.3	37.5	62.5	8.3	16.7
	자동차	13.3	30.0	53.3	13.3	30.0
	섬유류	14.3	28.6	71.4	28.6	28.6
	플랜트·해외건설	-	28.6	71.4	14.3	-
	선박	-	80.0	60.0	40.0	-
수출지역	미국(북미)	10.3	31.0	44.8	20.7	31.0
	중국	6.7	26.7	66.7	13.3	26.7
	일본	11.8	52.9	41.2	17.6	29.4
	유로존	6.3	43.8	56.3	25.0	31.3
	동남아	5.0	25.0	60.0	20.0	25.0
	중남미	50.0	50.0	50.0	-	-
	중동	-	20.0	80.0	20.0	-

* 자료 : 총 124개사 <복수응답>

II. '18년 2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3.7%, 전기대비 2.6% 상승

○ '18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2.5로 전기대비로는 2.6%,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7% 상승해 6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3.2('17.2Q) → 7.4(3Q) → 7.5(4Q) → 6.8('18.1Q) → **3.7(2Q)**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5.5('17.2Q) → △2.6(3Q) → 2.8(4Q) → 1.1('18.1Q) → **2.6(4Q)**

< 수출선행지수 추이 >

분기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07.1	104.3	107.1	110.0	111.9	118.1	115.0	118.2	119.5	122.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2	△5.2	△2.2	0.0	4.5	13.2	7.4	7.5	6.8	3.7
전기대비 증감률(%)	△2.6	△2.6	2.7	2.7	1.8	5.5	△2.6	2.8	1.1	2.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2.5	3.0	3.1	2.2	4.5	8.7	△5.8	0.1	△0.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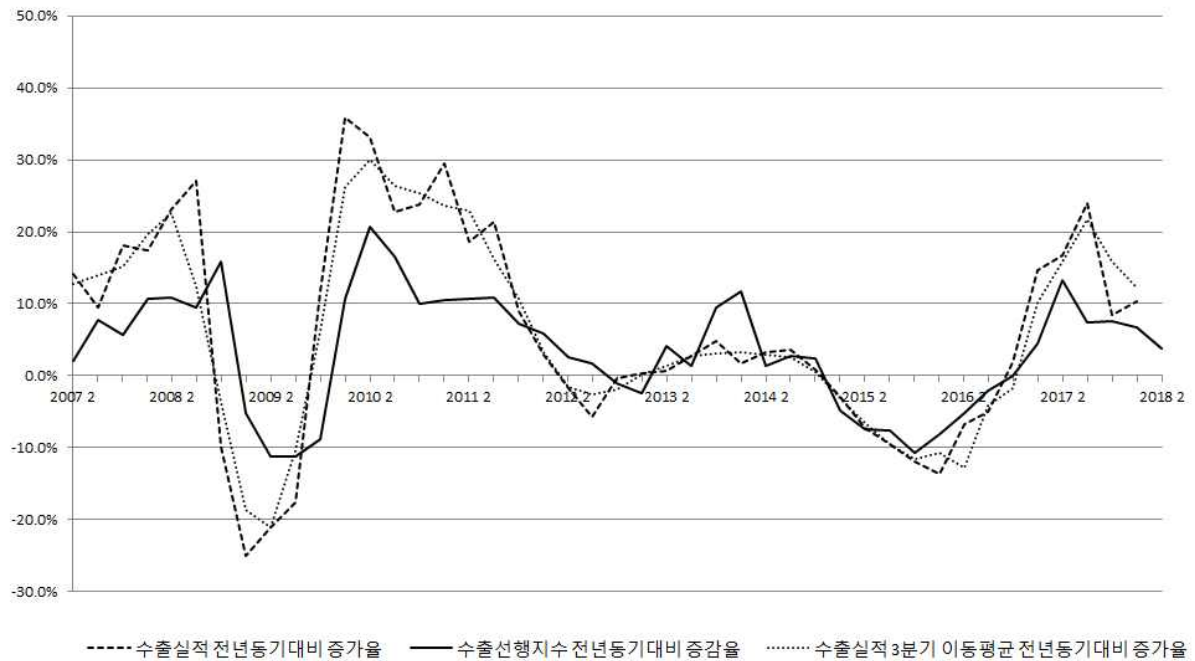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선행지수가 6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하락하고 있어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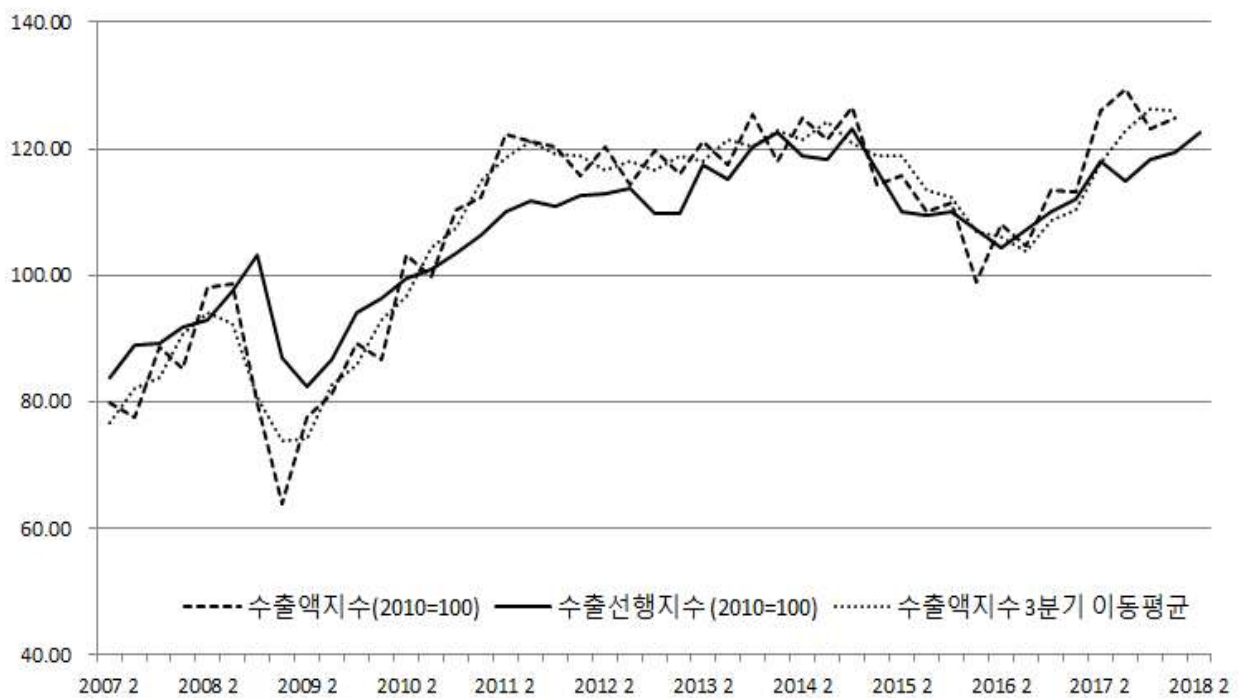
※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4.7('17.1Q) → 16.7(2Q) → 24.0(3Q) → 8.4(4Q) → 10.1('18.1Q)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은 지속, 가격경쟁력은 하락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 유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도 경기 성장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2010년=100) : 140.0('17.2Q)→141.8(3Q)→143.1(4Q)→ **144.0('18.1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율(전년동기비, %) : 5.9('17.2Q)→3.9(3Q)→3.4(4Q)→ **3.8('18.1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기대비 8.9%,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축소

※ 수출용 수입액지수 (2010=100)

: 97.7('17.1Q)→93.0(2Q)→96.7(3Q)→101.0(4Q)→ **110.0('18.1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46.3('17.1Q)→18.0(2Q)→15.7(3Q)→17.0(4Q)→ **12.5('18.1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1.6% 하락하는 등 증가폭 축소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과 3~6개월의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63.3('17.1Q)→60.2(2Q)→61.8(3Q)→64.9(4Q)→ **63.8('18.1Q)**

- 가격경쟁력 :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3% 하락하는 등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여 수출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29.4('17.2Q)→1,132.2(3Q)→1,105.7(4Q)→ **1,072.3('18.1Q)**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13.3('17.2Q)→110.9(3Q)→112.7(4Q)→ **113.2('18.1Q)**

- 실질실효환율* : 최근 달러 약세, 반도체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질실효환율은 113.1으로 집계, 21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는 등 고평가 지속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유가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5.2%) 및 전기대비(1.2%) 상승은 지속하고 있으나, LCD·플래시 메모리 등 전기 및 전자 기기 공급 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10.2 ('17.1Q) → 9.4 (2Q) → 8.9 (3Q) → 7.3 (4Q) → 5.2 ('18.1Q)

※ 수출물가지수 전기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3.3 ('17.1Q) → 0.7 (2Q) → 1.1 (3Q) → 2.2 (4Q) → 1.2 ('18.1Q)

- 주요 산업 : 반도체 단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고 기업 수요 증가세도 유지, 주요국 경기 호조로 인한 교역 증가·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 전망

※ D램 현물가격(\$, DDR4_4Gb) : 3.2('17.1월)→4.9(12월)→4.9('18.1월)→4.8(2월)→4.6(3월)

- 반도체는 세계 IT기업들의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투자 확대로 데이터센터용 D램 수요가 연초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 수출 호조세는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자동차는 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 수출 감소, 미국지역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 지속

□ '18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 내외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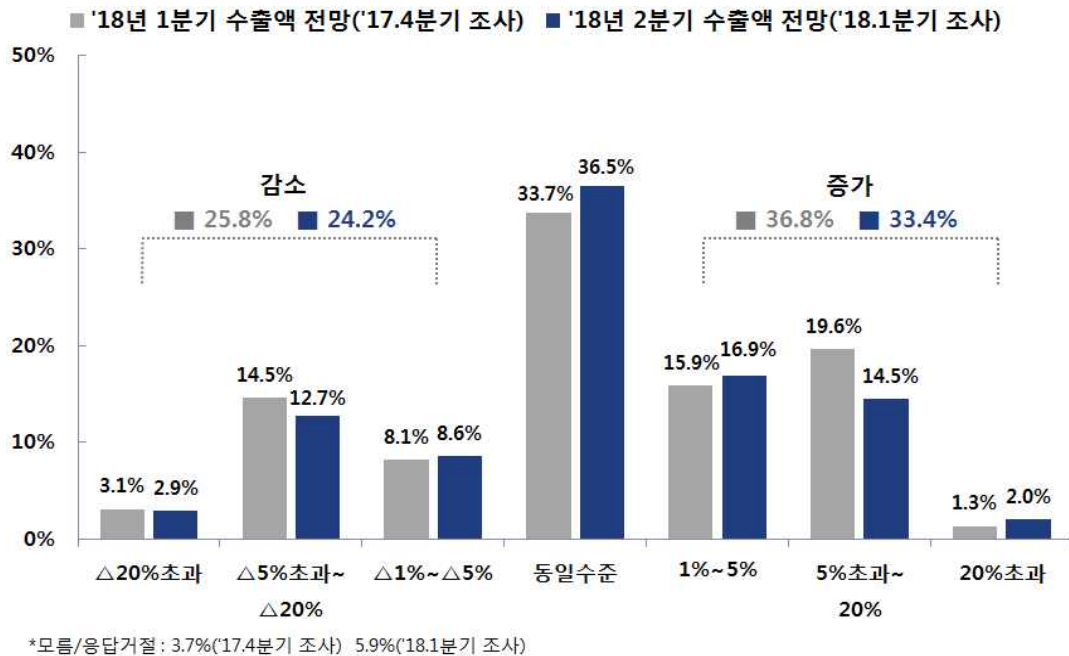
- 2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2.6%,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하고,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2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 내외 상승 전망
-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고, 전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

2. 수출기업 2분기 수출액 전망

-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이 33.4%로 감소보다 우세하나 비중은 전기에 비해 3.4%p 감소

< '18년도 1,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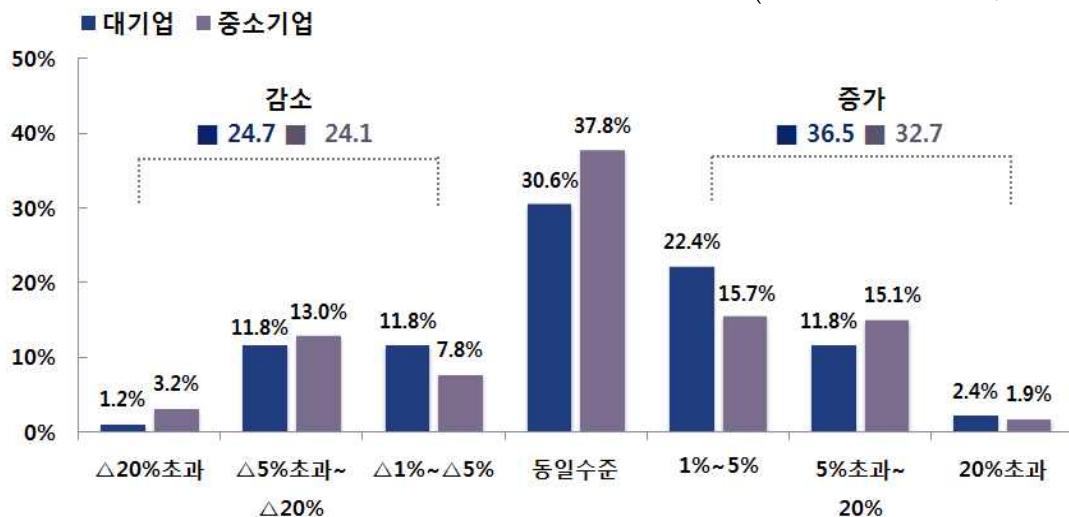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규모별) 대기업 '증가' 전망은 36.5%, 중소기업 '증가' 전망은 32.7%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증가 전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도 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기업규모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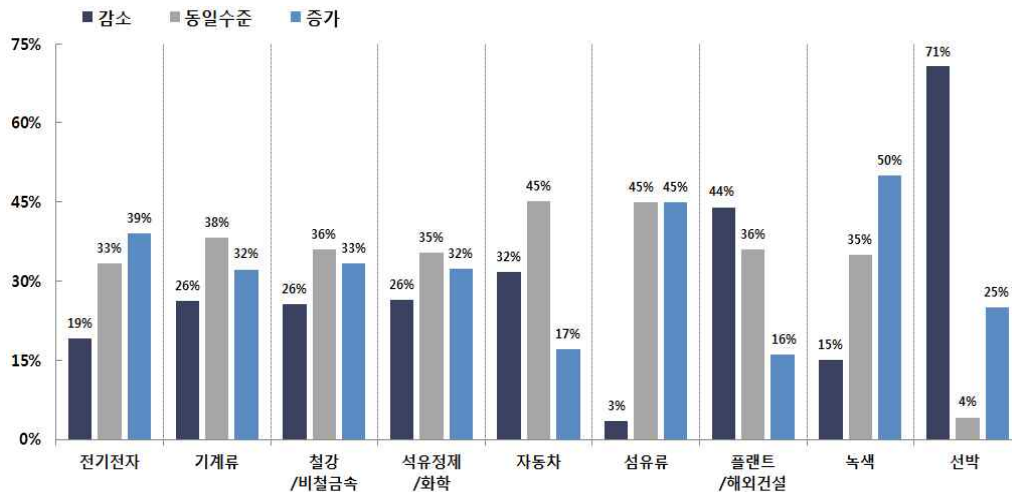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산업별) 전기전자, 석유류, 신재생에너지 등은 '증가' 전망 우세,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선박은 '감소' 전망 우세

< '18년도 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산업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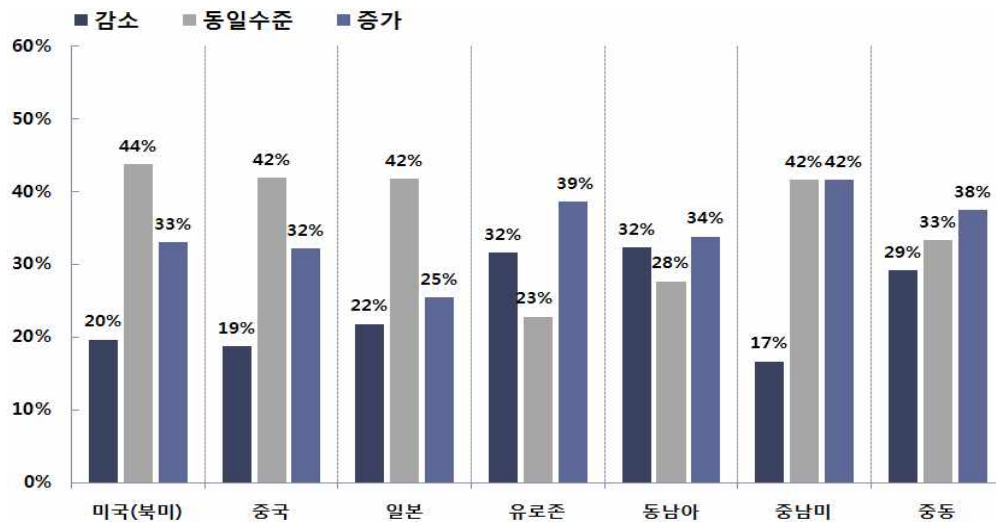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지역별) 유로존, 동남아 등에서는 '증가' 전망이 우세하나 비중은 전기에 비해 각각 1.4%p, 4.2%p 감소

< '18년도 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지역별, 전년동기대비) >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 전년동기대비 '18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률>

(단위 : %)

구 분		△20%초과	△5%초과~△20%	△1%~△5%	동일수준	1%~5%	5%초과~20%	20%초과
전 체		2.9	12.7	8.6	36.5	16.9	14.5	2.0
규모	대 기 업	1.2	11.8	11.8	30.6	22.4	11.8	2.4
	중 소 기 업	3.2	13.0	7.8	37.8	15.7	15.1	1.9
산업	전 기 전 자	2.9	8.6	7.6	33.3	20.0	17.1	1.9
	기 계 류	4.2	12.7	9.3	38.1	11.9	18.6	1.7
	철강·비철금속	1.3	17.9	6.4	35.9	19.2	12.8	1.3
	석유정제·화학	2.9	13.2	10.3	35.3	22.1	7.4	2.9
	자 동 차	3.7	14.6	13.4	45.1	7.3	9.8	-
	섬 유 류	-	3.4	-	44.8	24.1	20.7	-
	플랜트·해외건설	8.0	24.0	12.0	36.0	-	12.0	4.0
	신재생에너지	-	10.0	5.0	35.0	10.0	20.0	20.0
	선 박	4.2	41.7	25.0	4.2	4.2	8.3	12.5
수출지역	미 국 (북 미)	0.9	10.7	8.0	43.8	17.0	12.5	3.6
	중 국	0.9	9.8	8.0	42.0	17.9	14.3	-
	일 본	5.5	10.9	5.5	41.8	10.9	12.7	1.8
	유 로 존	1.8	17.5	12.3	22.8	22.8	14.0	1.8
	동 남 아	6.2	12.3	13.8	27.7	13.8	16.9	3.1
	중 남 미	-	16.7	-	41.7	33.3	8.3	-
	중 동	8.3	16.7	4.2	33.3	16.7	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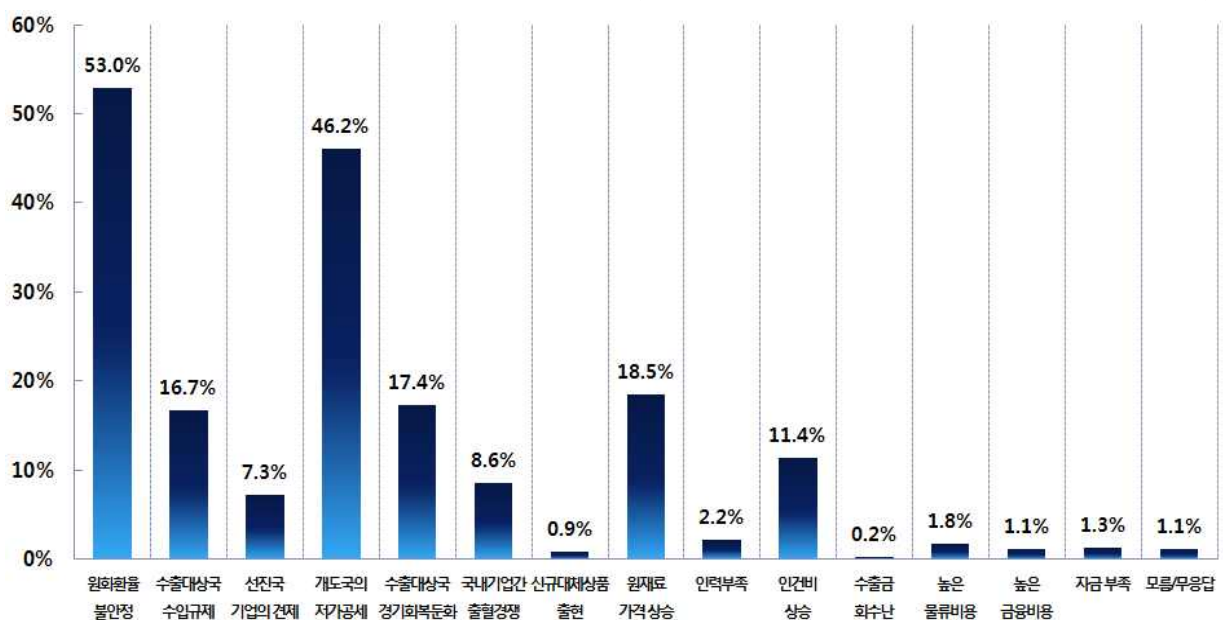
*자료 : 총 455개사 <모름/응답거절(27개사) 제외>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설문대상 수출기업(455개사)은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 '개도국의 저가공세', '원재료 가격 상승'순으로 응답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 2.3%p, '원재료 가격 상승' 3.7%p 상승했으나,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5.1%p, '개도국의 저가공세' 4.7%p 하락

< 1분기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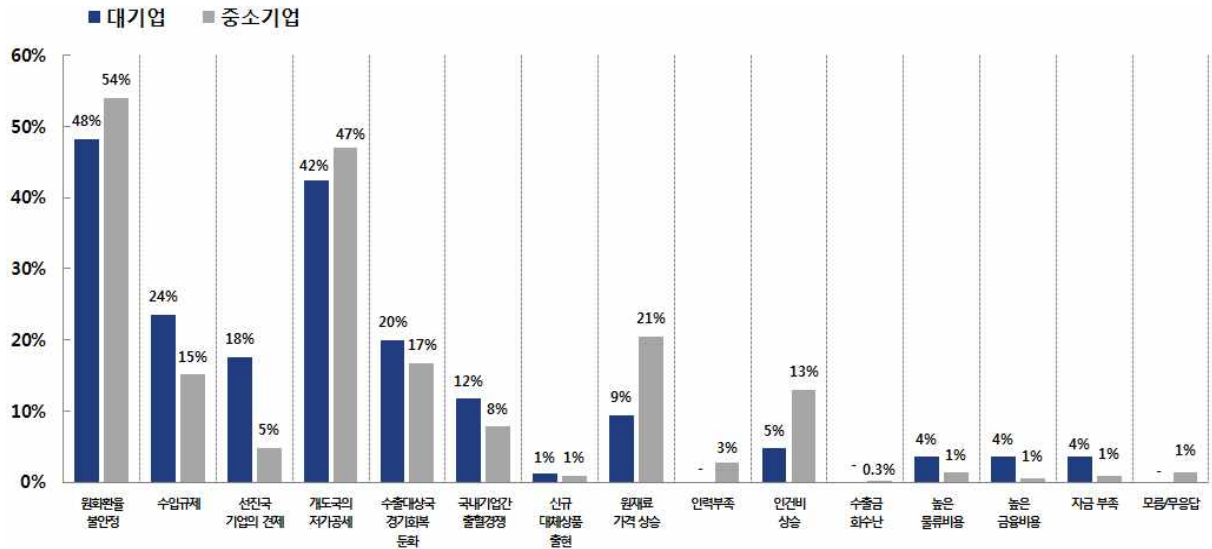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원화환율 불안정',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대기업은 전기대비 '수출대상국 수입규제' 응답률이 8.6%p 상승,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이 5.2%p 상승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군이 '원화환율 불안정',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전기대비로는 기계류, 석유정제·화학, 섬유류 등에서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은 하락

< 1분기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기업규모별) >

(응답 기업 수 455, 단위 : %, 1순위+2순위)



< '18년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단위 %, 1순위 + 2순위)

구 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입 규제	선진국 기업의 견제	개도국 저가공세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원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전 체		53.0	16.7	7.3	46.2	17.4	8.6	18.5	11.4
구 분	대 기 업	48.2	23.5	17.6	42.4	20.0	11.8	9.4	4.7
	중 소 기 업	54.1	15.1	4.9	47.0	16.8	7.8	20.5	13.0
산업	전 기 전 자	53.3	11.4	6.7	52.4	17.1	12.4	13.3	11.4
	기 계 류	66.1	14.4	8.5	41.5	13.6	4.2	16.9	13.6
	철강·비철금속	43.6	28.2	3.8	47.4	11.5	7.7	28.2	12.8
	석유정제·화학	52.9	25.0	5.9	42.6	16.2	8.8	23.5	10.3
	자 동 차	64.6	14.6	6.1	43.9	17.1	6.1	12.2	13.4
	섬 유 류	75.9	13.8	3.4	41.4	13.8	13.8	20.7	3.4
	플랜트·해건	16.0	4.0	20.0	44.0	40.0	16.0	12.0	8.0
	신재생에너지	45.0	20.0	0.0	60.0	20.0	10.0	5.0	0.0
	선 박	33.3	4.2	0.0	70.8	33.3	8.3	20.8	16.7
수출지역	미국(북미)	61.6	19.6	4.5	39.3	15.2	8.9	13.4	11.6
	중 국	50.9	29.5	8.0	43.8	15.2	8.9	20.5	8.9
	일 본	61.8	3.6	5.5	38.2	18.2	7.3	30.9	16.4
	유 로 존	47.4	15.8	5.3	64.9	21.1	8.8	10.5	19.3
	동 남 아	46.2	6.2	3.1	49.2	21.5	10.8	21.5	7.7
	중 남 미	58.3	8.3	8.3	83.3	8.3	8.3	16.7	0.0
	중 동	37.5	12.5	25.0	41.7	20.8	4.2	12.5	12.5

*자료 : 총 455개사 <모름/무응답 제외(5개사)>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18년 3월 12일~16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455개 업체
(대기업 85개, 중소기업 370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모형 개편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 수출 선행지수 추정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